제2강: 가능성, 연속성 그리고 능력

◆ 1교시: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하여

▲ 지난 시간의 논의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기된 문제가 뭐냐 하면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였죠. 박홍규 선생이 철학이라고 할 적에는 대부분의 경우 그냥 학문입니다. 이미 제도화되고 분과된 학문 체계로서의 철학도 있지만 박홍규 선생이 철학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대개 지식 자체, 학문 자체를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왜 많은 철학이 존재하느냐는 거였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고 보편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철학들이 갈라서게 되는 맥락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가냐 하면 희랍어의 dynamis에서 풀어갔죠. 이때 dynamis라는 용어도 굉장히 다의적이고 함의가 풍부한 말이지만 가장 1차적인 것은 인식능력이죠.

현대어로 하면 faculty에 가까운 말입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항상 faculty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은 학문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 중 가장 1차적이고 원초적인 것은 경험인데요. 경험이 주어진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박홍규 선생은 넓은 의미에서의 학문의 실증성, 근거를 매우 중요시 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중요했던 것이 경향, tendency의 문제가 있었고요.

▲ 가능성, 존재와 無 사이의 어떤 것

81쪽부터 봅시다. 가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정도차를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른바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된 것입니다. actuality 이라는 것은. 그러나 possibility라는 것은 열려있고,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정도차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탁월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실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완벽한 실현이란 것은 인간이 가진 dynamis 속엔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전지전능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www.artnstudy.com

그것에 대한 반론이 나오자 박홍규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은 전지전능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희랍의 신은 어떤 재료나 질료가 있어야 가공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는데 기독교에서의 신은 무(無)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희랍의 신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신에 대한 표상이 매우 많죠. 간단히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플라톤의 대화체의 Timaeus에 나오는 등장하는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천지창조시의 신이 있었고, demiourgos가 있었고. 조물주로 번역하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요. 지금으로는 '물질'이 있었고. 여기서 조물주(造物主)의 조(造)는 형상을 부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형상이란 것은 demiourgos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있는 겁니다. 희랍의 신은 언제나 제작자입니다. 질료가 있고 형상이 있고. 그것은 demiourgos보다 진리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 거지요.

demiourgos는 그것을 보고 진리에 따라서, 본 따서 만든 거죠. 천지창조설(天地倉造設)에서는 조물주는 일종의 조각가입니다. 조각할 형상이 미리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로 가면 달라지죠. 기독교의 신도 복잡하죠. 원래 기독교의 신도 하나가 아니거든요. 여러 신 중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고 예수가 나오면서 기독교로 분화되어 나오고, 그것이 또 희랍철학과 만나면서 하나의 사상으로 정립된 건데요.

그런 기독교의 신에서는 이것이 신의 mind로 들어갑니다. 신의 마음속으로. 그리스 신의 세계는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빚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형상을 넣었다고 표현을 해놓았던데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냥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저 본뜬 거죠. 이데아의 흔적을 넣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로 가면 이 형상의 세계가 신의 지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리의 세계가 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 안으로 들어옵니다. 즉 신의 마음이, 지성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즉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신의 관념, 신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현저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질료도 신 안에 원래 들어있던 것으로 봅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에 물질을 신에 집어넣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신은 백퍼센트 비(非)물질적인 존재죠. 신은 material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신이 키가 몇 센티입니까? 신이 곱슬러미에요, 직모에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은 백퍼센트 현실태입니다. 형상입니다.

www.artnstudy.com

그런데 물질도 신한테 원래 있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거꾸로 물질은 그럼 이 밖에 있었느냐.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신도 완벽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물질을 갖고 창조한 거잖아요. 신 바깥에 이미 무언가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aporia입니다. 근본적인 aporia.

無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희랍철학의 대전제입니다. 어떻게 無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는 거죠.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 다르죠, 無로부터의 완벽한 창조입니다.

신이 물질을 창조했다면 이미 무언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도 이상하고. 만약 물질이 바깥에 있었다면 신이 無로부터 창조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제가 다른 무언가를 보고 쓴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겁니다.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책을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물질이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야훼가 있으매 저쪽을 보니 거뭇거뭇하고 희끗희끗한 것이 보였다. 이런 식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전공자 만나면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튼 그때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뒤져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무엇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도 혹시 전공자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기독교의 신은 완벽한 무에서 창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상당히 재밌죠. 중요한 말인데요. 희랍철학에서는 존재와 無 사이에는 가능성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가능성에는 개연성과 연속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 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와 無 사이에는 한순간에 딱 창조되고 가능성은 연속적으로 이뤄진다. 無에서 존재를 만들 때에는 지적인 능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예가 나왔는데요. 존재와 無 사이에는 possibility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와 無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존재와 無는 절대 모순입니다. absolute contradiction입니다.

절대모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타협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아요. 존재와 無 사이에서는. 가능성이라는 것, possibility라는 말에는 반드시 그 안에 연속성이 포함됩니다.

가능성이란 개념은 어떤 개념과 밀접한가 하면 시간과 밀접합니다. 가능성이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가능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www.artnstudy.com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역으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다고 할 때,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에게는 possibility라는 개념이 없지요. actual인 거죠. 시간 속에 존재하는 존재는 항상 변해가는 것이고 어떤 possibility를 갖고 있죠.

그러나 존재와 無 사이에선 아무것도 없어요. continuity가 없어요. 만일에 존재에서 無로 간다거나 無에서 존재로 간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도 나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의 아포리아가 무엇인고 하면, 태초에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당장 나오는 물음이 무엇이냐 하면 왜 하필 신이 딱 그 시기에 만들었을까.

더구나 중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지창조라는 건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거든요. 한 7천 년 전의 일인가요?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중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이후에 창조된 겁니다. 성서에도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계산해보니 불과 몇 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 태초라고 하면 수십억 년 전의 일로 알고 있죠. 비록 물리학적인 가설이지만. 그게 맞다고 하고.

그러나 중세의 개념으로 청지창조는 그런 식이 아니죠. 우리로 치면 저 옛날 세종대왕 시기 정도인 거죠.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럼 신은 그 전에 무엇을 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런 물음 자체가 무엇을 전제합니까. 신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신이 하는 모든 행위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전제가 틀리다면 그런 물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이 하는 모든 일은 완벽하게 이유가 있는 건데, 왜 하필 그때 우주를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과 더불어 우주를 만든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우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세계를 만들 때 시간도 창조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대 천문학에서도 똑같은 물음이 제기됩니다. 현대 천문학에서도 여러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빅뱅 이론이 있잖아요. 당장 물어볼 수 있죠. 왜 갑자기 그때 우주가 터졌는가. 그 빅뱅의 점은 어디이고 언제 터졌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상당한 aporia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시공간이 없었다는 거

www.artnstudy.com

죠. 그럼 물질은? 그것도 아주 골치 아픈 문제지요. 물질이 백퍼센트 없었는데 생긴 건지, 아닌지. 아주 복잡한 문제죠.

아무튼 그것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뭐냐 하면 언제 어디서 빅뱅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빅뱅이 일어남으로써 공간과 시간이 생겨났다는 거죠.

▲ 능력은 연속적인 것이다

아무튼 dynamis라는 것은 연속적인 것이고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무로부터 존재를 만든다는 것은 아예 그런 dynamis를 초월하는 거죠.

지식은 일종의 능력인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는 것에서만 한해 실현되죠. 능력을 시간 속에서 연속적으로 발휘하는 거죠. 갑자기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 말고 능력이 불연속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수영을 한다고 했을 때요. 수영을 하는 능력이 갑자기 탁 발견되는 건 아니지요. 이렇게 시간 속에서 발휘가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신처럼 이렇게 거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능력이 불연속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그림을 그리는 것도 dynamis가 시간에 따라 발휘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불연속적으로 발휘가 된다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매직이죠. 마법(魔法). 사람들이 매직을 굉장히 좋아하죠. 허황된 얘기인데도 좋아하죠. 해리포터 같은 것도 수백만 수천만 부가 팔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한번 철학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사람들의 모든 능력은 연속적으로 발휘가 되는 거죠. 시간 속에서. 그런데 마법은 그렇지 않죠. 얍 하면 뭔가 생기는 거죠. 매직, 마법.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마법을 좋아하는 거죠.

인류 역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마법을 키우려고 애쓴 기록이며 마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락으로 만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마술이죠. 마법은 상상적이지만 '된다'는 전제가 있는 개념이고요. 그런 상상에 불과한 것을 눈으로 즐겁도록 보여주는 것이 마술이죠. 모자를 벗기면 토끼가 나온다거나. 마법을 오락화한 것이 마술이죠.

옛날에 봉건사회에서, 특히 상고시대에 왕을 보좌해주는, 일종의 상고시대 철학자들은 마법사였죠. 그 사람의 말 한 마디에 무언가가 이뤄지고. 그러나 그것은 다 상상의 영역이고. 냉

www.artnstudy.com

정하게 학문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능력은 시간 속에서 이뤄지는 거죠. 연속적으로,

능력은 연속적으로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는 것에서 실현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다 안다는 것이 나쁘다거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그렇게 다 안다고 말하는 것, 마법 같은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플라톤이 소피스트들을 공경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소피스트를 공격할 때 잘 쓰는 말이 있지요. 요술쟁이. 왜? 다 안다고 하니까요. 다 안다는 게 가능하냐는 소리지요.

모든 것이란 '多'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無 속에는 無나 존재의 관계 속에는, 연속성도 없고 단위도 들어가지 않는다. 단 無라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 대비되고 전체라는 것은 희랍적인 연속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多'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하나로 통일될 때 나오는 것인데 이 천체 밖에는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의 통일적 전체로 볼 적에 그것을 다른 타자에서, 전체 아닌 것에서 만들었다고 할 적에 결국은 무에서 만들었다는 말밖에 안 된다. 그러나 연속성은 한 개의 기준에서 보면 그 바깥으로 자꾸 나간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 연속성에는 전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 多의 개념

박홍규의 책을 읽어보면 다(多)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many지요. 상상해 보면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된다고 보세요. 서양 존재론사라는 것은 '영원 부동의 일자' 개념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우주가 무엇이냐. 영원 부동의 일자이다.

그럼 무엇이 부정이 되죠? 첫째, 다(多)가 부정이 되죠. 모든 것이 다 각각 존재하는데 어째서 이것이 일(一)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운동. 왜 비가 내리고 사람이 죽고 하는데 운동이 같다고 할 수 있느냐.

다(多)와 운동이 가짜라는 말은 그리스 종교사의 가장 큰 스캔들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아주 황당무개한 얘기지만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얘기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多와 운동을 부정하고 이 세계를 영원 부동의 일자라고 한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뒤의 철학들이 나오는 겁니다.

엠페도클레스나 소크라테스 등의 모든 철학자들은 모두 다(多)를 전제하지요. 그 다음이 운동. 이 세계는 운동한다. 모든 것이란 다에 대해서 하는 얘긴데, 無속에는 無나 존재의 관계 속에는 연속성도 없고.

그렇죠? 단위도 들어가지 않는다. 어떤 전체가 나뉘어 져야 단위도 있는 거죠. 단 無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 대립한다. 無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는 거죠. 어떤 건 있고 어떤

www.artnstudy.com

건 없는 것은 절대 無라고 하지 않죠. 그게 아니라 전체 자체가 없는 거죠.

전체라고 하는 것은 희랍적인 연속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多)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하나로 통일될 때 나오는 것인데요.

전체. the whole은 그 안의 요소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질 때, 전체가 나오는 거죠. 전체 밖에는 무엇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전체 밖에 무엇이 있으면 그것은 전체가 아니죠. 전체를 하나의 통일적 전체로 볼 때에 그것을 다른 타자에서 전체 아닌 것에서 만들었다고 할 적에 결국은 무(無)에서 만들었다는 말밖에는 안 된다.

이 세계 전체를 볼 적에 전체가 무언가 다른 것에서 나왔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전체가 어떤 다른 데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전체가 아니죠. 만약에 어떤 전체가 타자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無에서 생긴 것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런 식의 세계관이 기독교적, 중세적 세계관이죠. 그러려면 연속성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죠. 왜? 연속성이라는 것은 limit를 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연속성이란 운동이 들어가는 연속성이죠. 생성이 들어가는 연속성.

수학에서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하잖아요. 1 바로 다음으로 큰 수가 무엇이냐. 자연수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2죠. 유리수가 존재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계산할 수는 있죠.

그러나 무리수까지 다 고려해서, 선 전체를 고려해서 볼 적에는 1 다음의 숫자는 무엇일까. 못 구하죠. 할 수가 없죠. 1.001보다 1.0001이 더 가깝겠죠. 즉 continuous는 얘기는 before와 after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어떤 하나만 쏙 빼는 방식을 사용하죠. 물론 이것은 수학적으로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연속성이란 쭉 뻗어가는 겁니다. 어디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연속성이란 어떤 한계를 지으면 자꾸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면 연속성에는 전체가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죠.

왜? 전체라고 말하려면 무언가 딱 끊어져야 하는데 연속성은 그런 것 없이 어디론가 계속 가기 때문이죠.

◆ 2교시: Master의 문화와 능력에 관한 논의

▲ 그리스 문명은 Master가 없는 문화

www.artnstudy.com

(청중의 낭독)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은데 몇 가지를 짚어보면, '방황하는 원인'이라는 말은 박홍규 선생이 늘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aitia란 원인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인데요. 방황하는 원인이다. 이때의 방황하는 원인이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게 될 것이니까 우선은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 시간적인 것, 구체적인 것은 항상 어떤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process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런 process를 추상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분의 지론이고 결정론이나 전지전능 같은 것과는 대립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은 사물에 부딪혀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그러므로 가능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이 되지 않을 부정을 내포하고 있고.

능력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되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발휘가 되려면 그 능력을 끄집어내서 현실화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대화라는 겁니다. dialog.

dialog를 해야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인식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할 때 아주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산파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도 신이 아니죠. 소크라테스 자신도 dynamis를 지닌 사람이고. 자신의 dynamis를 갖고 시행착오를 거친 사람이지요.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dynamis가 아니라 어떤 완결된(complete)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쳐 주는 거겠죠.

이것이 희랍 철학의 대전제지요. Mssster는 없다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류 4대 문명과 4대 선인을 얘기하는데요.

중국은 국가 이름이니까 애매하니 동북아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중국이라고 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중국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죠. 그 다음에 인도가 있고. 국가명이라기보다는 그 문명 전체로서의 인도죠.

그리고 그리스 문명과 오리엔트 문명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인도 문명이나 오리엔트 문명은 철학이 아니라 종교라고 합니다. 오리엔트는 분명 종교이고 인도는 종교이자 철학이라고 하고. 동북아는 철학이긴 하지만 종교성을 뺄 순 없습니다.

www.artnstudy.com

그리스는 철학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박홍규가 얘기하는 이 구조를 갖고 보면 좀 재밌죠.

동북아의 대표적 인물은 공자(孔子, BC 551-BC479)잖아요. 공자의 논어(論語)라는 책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왈(子曰)이죠. 공자가 말씀하기기를. 인도의 대표적은 붓다죠.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시아문(如是我聞).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누구의 말씀을? 붓다의 말씀을.

오리엔트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이지요.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고 하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어요? 나도 모른다. 모르니까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죠. 확실히 달라요. 동북아에서는 자왈(子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인도는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붓다의 말씀을.

예수는 가장 표현이 강하지요. 내가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천국으로 가리라. 쉽게 얘기하자면 대문자 Master가 있는 겁니다. 대문자 Master가 있는 문명과 없는 문명은 좀 다르죠.

우리가 보통 마르크시즘 같은 경우, 마르크스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죠. 사실은 구소련이나 이런 곳에서는 마르크스가 대문자 Master가 되는 거죠. 굉장히 분위기가 종교적이잖아요.

종교를 비판하는데도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대문자 Master가 있는 문명과 없는 문명. 어느 것이 좋은지는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억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좋게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어떤 Master가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면 그건 굉장히 행복한 것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유를 막아버리기도 하지요. 좋은지 나쁜지의 가치 판단은 각자 하기로 하고.

재밌는 것은 (희랍을 제외한) 문명들은 다 대문자 Master가 있는 문명입니다. 희랍 문명만 대문자 Master가 없는 문명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합니다. 다른 데서는 철학이 발달하지 않지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Master가 다 얘기해 주는데 철학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가르침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희랍철학에는 기본적으로 Master가 없습니다.

물론 플라톤의 대화를 읽어보면 소크라테스가 대문자 Master의 역할을 많이 하긴 하죠. 대화편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dialog지만 사실은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이야기로 넘어

www.artnstudy.com

가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은 진정한 dialog가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대화정신, dialog정신은 희랍문명을 특징지어 주는 요소입니다. 독특하게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야 라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끄집어내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고 master가 있어야 합니다. master가있어야 하죠.

소문자 master지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master의 대화, dialog. 로봇 얘기도 재미있죠. 〈블레이드 러너〉가 생각이 나죠? 인조인간이 아닌지 실험을 하잖아요. 인조인간이 아닌지가 판명될 때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대답을 아주 잘 하면 오히려 그게 로봇인 겁니다.

물음을 비합리적으로 하잖아요. absurd 하게요. 본지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질문을 약간 부조리한 것을 하는데요. 기계한테는 absurdity 라는 게 없거든요. 기계가 인간보다 뛰어나죠. 계산도 빠르고 힘도 세고.

그런데 기계가 인간한테 안 되는 게 있어요. 영혼을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천년 후에는 기계가 굉장히 발전해서 기계가 영혼을 가질 수 있을 진 모르겠어요. 기계가 불안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안, 부조리. 이게 인간적인 거지요. 그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황당무게. 오락가락하는 것. 어떤 사람은 영혼과 마음을 구분하지요. 일본 사람들이 로봇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일본 문화를 특징짓는 것 중의 하나가 로봇 문화인데요. 어디서 왔는지는 연구를 좀 해봐야 하겠지요. 예컨대 〈우주소년 아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정신을 두 개로 나눕니다. 기본적인 의미에서의 영혼이 있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연산하고 기억하고. 또 마음이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personality. 그런 것도 나누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재밌는 지적이죠. 기계는 반드시 인과의 법칙으로 가지만 인간의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 능력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고대 철학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철학은 인간의 능력을 반영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www.artnstudy.com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발휘되어 나오는 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역사가 된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 지평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내용의 엑기스만 뽑아서 얘기하는 추상적 철학은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자꾸 그것을 절대화하게 되지요. 맥락을 다 빼버리고. 철학적으로 무엇이 기본이냐는 논의를 보면 역사를 보는 철학적 관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철학을 보면 역사적 관점이 나온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철학이 역사에 포함되는 것일까, 역사가 철학에 포함되는 것일까. 약간 사적(私的)인 얘기가 되겠지만 전 항상 철학과 역사를 같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없는 역사는 잡다하죠. 역사가 없는 철학도 공허하죠. 뼈대만 보여주니까요. 맥락이 없으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박홍규는 철학 중심으로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고대 철학에 그런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느냐. 학문적인 지식의 형태로 볼 때, 왜 여러 가지가 있느냐 하면 능력의 소산(所産)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대화를 읽어보면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능력은 이런 것들을 백 퍼센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이해하지 않으면 인식에서의 산파술을 이해할 수 없다.

산파술의 의미란,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이 플라톤의 삼기설의 근거이지요. 인간의 인식 능력은 첨부터 갖고 있다는 거죠.

플라톤과 칸트의 차이는 뭡니까.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가 다 이런 입장인데 플라톤이나 데카르트는 비교적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내용을.

플라톤으로 말하면 그것이 이데아이고요. 데카르트는 이미 우리 안의 본능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칸트나 그 뒤에 나온 사람들, 촘스키(Chomsky, 1928-) 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은 내용이라는 것은 갖고 있지 않고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고 하되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틀을 갖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경험을 중시하지만 그렇게 경험을 해서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은 타고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그냥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그대로 교육하면 주입식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스스로 깨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죠.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www.artnstudy.com

▲ 철학= 사물을 가장 탁월하게 취급하는 능력

84쪽으로 갑시다.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능력은 절대로 발휘되지 않는다. 그러면 철학이 무엇이냐는 선험적인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닌가. 철학은 더불어 나가는 능력이다. 그런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물을 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물을 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취급하는 능력이 철학이다. 그 중에서 '지적(知的)으로'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놔야 합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지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차를 잘 모는 사람, 카레이서가 있고 차에 대해서 지식이 얕은 사람이 있죠. 안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죠. 공은 이승엽이 잘 치지만 해설은 하일성이 잘 하는 거 아니예요. 하일성이 아무리 해설은 잘 해도 공은 못 치죠. 이승엽은 공은 잘 치지만 해설을 해보라고 하면 잘 못 하겠죠.

안다는 것, 사물을 다룬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겁니다. 기(氣)에 대해서 방대한 책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를 다룰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 아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지극히 드물죠. 물리학도 잘 하고 당구도 잘 치고. 실험도 잘 하고 유체역학도 잘 하고.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요. 하지만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하죠.

영화에서 보면 물리학 하는 여자들은 꼭 미인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지요. 쉽지 않은 거지요.

(철학은) 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취급하는 능력이죠. 사유한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학문을 하다 보면 사람이 너무 개념으로만 살다 보니 몸으로 하는 것에는 약하게 되고, 몸으로만 하게 되면 또 머리가 텅텅 비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인생이란 것이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희랍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희랍 사람들보다 더 예민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민하지요. 탁월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러죠.

로마인들이 아는 honor죠. 명예. 비결정론적이죠. 정도가 있는 거죠. 어떤 철학이 다른 철학보다 탁월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의 철학만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공자가 논어를 오늘날 그렇게 썼다면 아무도 읽지 않을 겁니다. 무슨 철학책을 이렇게 썼어, 이러면서 철학으로 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칸트에서 읽을 수 없는 것을 공자에서 읽을 수도 있죠. 반대로 공자가 못 주는 것을 칸트가 줄 수도 있고.

www.artnstudy.com

어떤 면에서는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의 철학만 있다는 것은, dynamis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완전한 전지전능한 철학은 없는 것이고, 만약 전지전능하다면 이 세상은 하나처럼 있겠죠.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www.artnstudy.com